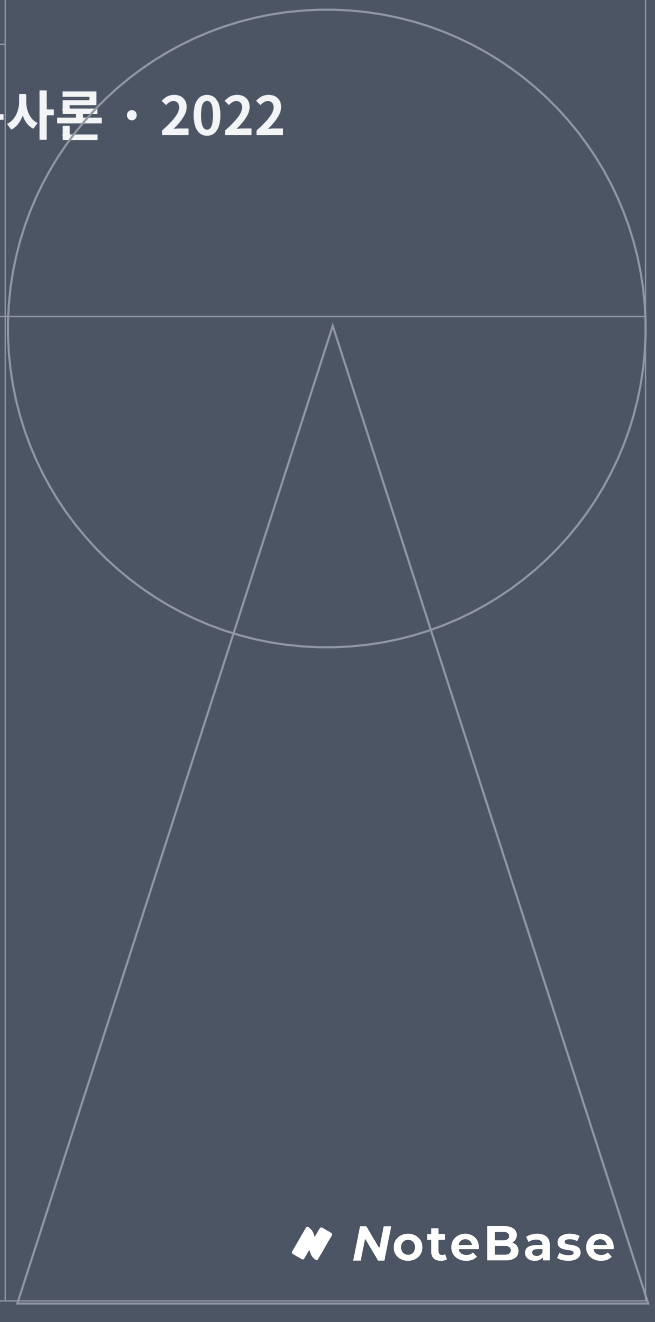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정보봉사론 · 2022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정보봉사론 · 2022

공무원/군무원/9급 · 정보봉사론 · 2022

1. 다음 중 ㉠과 ㉡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 『도서관법』에 따르면 "도서관 서비스"는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 ㉡

① 교육서비스 - 정보검색 서비스
② 교육서비스 - 데이터 리터러시
③ 이용서비스 - 이용지도교육
④ 이용안내서비스 - 정보검색서비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도서관법」상 도서관서비스의 정의에 들어가는 용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시설·정보기기를 사용하는 서비스와 자료입수·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법정 명칭을 정확히 연결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이용서비스 =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지도교육 = 자료입수와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해 이용 방법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활동이다.

핵심 구분

「도서관법」의 도서관서비스 정의는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와 '자료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을 열거한다. 따라서 ㉠은 '이용서비스', ㉡은 '이용지도교육'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시설과 정보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교육서비스'가 아니라 '이용서비스'이고, 자료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 활동은 '정보검색 서비스'가 아니라 '이용지도교육'이다.
- 틀린 표현: 교육서비스 - 정보검색 서비스
- 올바른 표현: 이용서비스 - 이용지도교육

② X
- ㉠의 '교육서비스'와 ㉡의 '데이터 리터러시'는 법의 정의에 사용된 명칭이 아니다. 해당 문맥의 법정 용어는 각각 '이용서비스'와 '이용지도교육'이다.
- 틀린 표현: 교육서비스 - 데이터 리터러시
- 올바른 표현: 이용서비스 - 이용지도교육

③ O
-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자료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이라는 정의 문언과 정확히 일치한다.

④ X
- 법은 ㉠을 '이용안내서비스'가 아닌 '이용서비스', ㉡을 '정보검색서비스'가 아닌 '이용지도교육'이라고 규정한다.
- 틀린 표현: 이용안내서비스 - 정보검색서비스
- 올바른 표현: 이용서비스 - 이용지도교육

오답 포인트

'정보기기 이용'을 안내나 교육으로 넓게 해석하거나 '정보해득력 강화'를 정보검색·데이터 리터러시라는 유사 표현으로 바꾸면 틀린다. 이 문항은 뜻이 비슷한 말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정의 조항의 정확한 용어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설·정보기기와 연결되면 '이용서비스', 자료입수·정보해득력 강화와 연결되면 '이용지도교육'으로 판단한다. 법령의 정의를 묻는 빈칸 문제에서는 의미가 비슷한 일상어보다 조문에 쓰인 명칭을 우선한다.

암기 포인트

시설·기기 → 이용서비스, 자료입수·정보해득력 → 이용지도교육이다.

NoteBase

2. 다음 중 정보추구모형 중 더빈(B. Dervin)의 의미형성(Sense-making)모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 그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에 의해 정보가 요구되고 추구된다.
② 개인의 정보추구를 구성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③ 정보를 추구하는 개인은 <상황 - 격차 - 이용>이라는 단계적 과정을 통해 의미를 생성한다.
④ 정보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주관적인 산물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더빈(B. Dervin)의 의미형성(Sense-making) 모형이 정보를 객관적으로 주어진 실체가 아니라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격차를 해소하려고 구성하는 주관적 의미로 보는 이론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더빈의 의미형성 모형은 정보추구자를 능동적인 의미 구성자로 본다. 개인은 처한 상황에서 지식의 격차를 인식하고, 그 격차를 건너기 위해 정보를 탐색·구성하며, 구성한 정보를 이용한다. 따라서 핵심 연결은 '상황—격차—이용'과 '구성주의·주관적 의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정보 그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에 의해 정보가 요구되고 추구된다'는 표현이 틀리다. 더빈의 모형에서 정보요구는 정보 자체의 객관적 가치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인식한 격차를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올바르게는 '정보는 개인이 처한 상황과 인식한 격차에 따라 요구되고 추구된다'이다.
② O — 개인의 정보추구를 객관적 정보의 수동적 수용이 아니라 개인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보는 구성주의 관점에 해당한다.
③ O — '상황—격차—이용'은 더빈의 의미형성 모형을 설명하는 핵심 단계이다. 개인은 상황 속 격차를 인식하고 이를 메우는 과정에서 의미를 만들어 정보를 이용한다.
④ O — 정보의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구성한다. 따라서 정보는 이용자에게 의미가 있는 주관적 산물로 파악된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①은 '정보의 가치'라는 그럴듯한 표현으로 정보추구의 출발점을 정보 자체에 두었다. 그러나 더빈은 정보의 객관적 속성보다 이용자가 처한 상황과 그가 인식한 격차를 중심에 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더빈의 의미형성 모형은 '이용자—상황—격차—이용—주관적 의미 구성'으로 판단한다. 정보 자체의 객관성이나 보편적 가치를 정보추구의 원인으로 제시하면 이 모형과 어긋난다.

암기 포인트

더빈 = 상황 속 격차를 건너며 의미를 구성하고 이용한다.

NoteBase

3. 다음 중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 되는 것은?
①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② 영상저작물
③ 소설·시·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④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예시와 법률이 명시적으로 보호에서 제외한 저작물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저작물의 종류와 보호 제외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사건의 사실만을 그대로 알릴 뿐 작성자의 창작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 보도를 뜻한다.

핵심 구분

저작권법 제4조는 어문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저작물의 예로 든다. 반면 제7조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한다. 따라서 시사보도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달에 불과하여 창작적 표현이 없는 경우가 제외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저작권법 제4조가 열거한 보호 대상 저작물의 예이다.
- 틀린 표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 올바른 표현: 창작성이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② X
- 영상저작물은 저작권법 제4조가 열거한 보호 대상 저작물의 예이다.
- 틀린 표현: 영상저작물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 올바른 표현: 창작성이 있는 영상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③ X
- 소설·시·강연·연설·각본과 그 밖의 어문저작물은 저작권법 제4조가 열거한 보호 대상 저작물의 예이다.
- 틀린 표현: 이러한 어문저작물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 올바른 표현: 창작성이 있는 소설·시·강연·연설·각본 등의 어문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④ O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다. 단순한 사실 자체에는 저작자의 창작적 표현이 없기 때문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시사보도'만 보고 모든 뉴스가 보호되지 않는다고 넓게 이해하면 안 된다. 보호 제외의 핵심 문구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이며, 취재·분석·논평 등 창작적 표현이 포함된 보도는 보호될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해당 항목이 저작권법 제4조의 저작물 예시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이어 제7조의 보호 제외 대상인지 판단한다. 시사보도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창작적 표현 없이 사실만 전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프로그램·영상·어문은 보호 대상이고, 사실 전달뿐인 시사보도는 보호 제외이다.

NoteBase

4. 다음 중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달리 의사전달의 기능을 갖지 못한다.
② 표현의 강도에 따라 전달의미의 단호함을 나타내고 확인의 정도를 전달할 수 있다.
③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신뢰도는 낮다.
④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달리 일정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과 그 신뢰도·규칙성을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말과 글 같은 언어 기호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표정, 시선, 몸짓, 자세, 목소리의 강도와 억양 등 언어 이외의 단서로 의미와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비언어적 표현의 강도는 의미의 정도나 확신의 수준을 드러내며, 이러한 표현도 사회·문화적 관습과 상황에 따른 일정한 규칙의 영향을 받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의사전달의 기능을 갖지 못한다'이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도 표정·몸짓·시선·목소리 등의 단서로 감정, 태도, 의도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올바르게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도 의사전달의 기능을 갖는다'이다.
② O — 표정이나 몸짓, 목소리의 강도는 전달하려는 의미가 어느 정도로 강한지, 화자가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신뢰도는 낮다'이다. 비언어적 단서는 의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말과 행동이 어긋날 때 실제 감정이나 태도를 판단하는 데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올바르게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상황에 따라 언어적 표현보다 더 신뢰성 있는 단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일정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이다. 비언어적 표현도 사회·문화적으로 공유되는 관습과 상황적 규칙에 따라 의미가 해석된다. 올바르게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도 일정한 사회·문화적 규칙이 적용된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비언어적이라는 말을 '의미 전달이 없고 아무 규칙도 없는 표현'으로 오해하기 쉽다. 특히 ③의 '신뢰도는 낮다'와 ④의 '일정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언어적 표현이 말보다 덜 명시적이라는 특징을 기능·신뢰도·규칙의 부재로 과장한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선지는 '메시지 전달 기능이 있는가', '표현의 강도가 의미와 확신의 정도를 보여 주는가', '사회·문화적 규칙의 영향을 받는가'를 차례로 확인한다. 기능과 규칙을 전면 부정하는 표현은 틀린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비언어적 표현도 전달한다, 강도를 드러낸다, 규칙을 따른다.

NoteBase

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유진 가필드(Eugene Garfield)가 1955년에 고안한 것으로 학술지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과학기술 분야 및 사회과학 분야의 누적된 논문 수 및 인용횟수를 이용하여 주제 분야 내에서 저널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는데 활용된다.

① 즉시성 지표(immediacy index)
② 총 피인용수(total cites)
③ 피인용반감기(cited half-life)
④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진 가필드가 제안한 학술지 평가 지표의 설명을 영향력 지수와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영향력 지수는 특정 학술지의 논문이 얼마나 자주 인용되는지를 논문 수와 인용 횟수의 관계로 나타내어 학술지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연도에 받은 인용 횟수를 그 이전 2년간 게재된 인용 가능 문헌 수와 관련지어 산출한다. 유진 가필드와 1955년이라는 단서도 영향력 지수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연결어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즉시성 지표는 해당 연도에 발표된 논문이 같은 연도에 얼마나 빨리 인용되었는지를 나타낸다. 틀린 표현인 '학술지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는 지표'는 이 문항의 설명에서는 '영향력 지수'로 고쳐야 한다.
② X — 총 피인용수는 특정 연도에 그 학술지가 받은 전체 인용 횟수로, 논문 수로 나누어 학술지의 상대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평균 지표가 아니다. 따라서 제시문의 지표는 '총 피인용수'가 아니라 '영향력 지수'이다.
③ X — 피인용반감기는 특정 연도에 한 학술지가 받은 인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논문들이 발표된 기간을 나타내어 인용 문헌의 시간적 수명을 보여 준다. 따라서 제시문의 지표는 '피인용반감기'가 아니라 '영향력 지수'이다.
④ O — 영향력 지수는 논문 수와 인용 횟수를 이용하여 학술지의 상대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유진 가필드가 1955년에 제안했다는 단서와도 일치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네 지표가 모두 인용 횟수와 관련되므로 이름만 보면 혼동하기 쉽다. 특히 ② 총 피인용수는 단순한 인용 총량이고, ③ 피인용반감기는 인용된 논문의 시간적 분포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학술지의 상대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④ 영향력 지수와 구별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진 가필드·1955년·논문 수와 인용 횟수·학술지의 상대적 중요도’가 함께 제시되면 영향력 지수로 판단한다. 같은 해의 빠른 인용은 즉시성 지표, 전체 인용량은 총 피인용수, 인용 문헌의 연령은 피인용반감기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가필드·1955년·학술지의 상대적 영향력 = 영향력 지수이다.

NoteBase

6. 다음 중 브라우징(browsing)을 통한 검색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탐색과 동일하게 구조화된 검색방법이다.
② 전체적으로 시스템과 이용자 사이에서 매우 상호적인 과정이다.
③ 검색하는 동안 예상치 못했던 유용한 것을 우연한 발견을 할 수 있다.
④ 정보요구가 광범위하고 모호할 때 사용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브라우징의 비구조적·상호작용적 성격과 우연한 발견 가능성을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브라우징은 정보요구나 탐색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나 링크를 훑어보며 관심 있는 정보를 발견해 가는 비교적 비구조적인 검색 방식이다.
탐색은 비교적 명확한 정보요구를 바탕으로 검색어와 검색식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결과를 좁혀 가는 방식이다.
결정 차이축은 검색 목표와 절차의 구조화 정도이며, 브라우징의 핵심 키워드는 상호작용·모호한 정보요구·우연한 발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탐색과 동일하게 구조화된 검색방법'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브라우징은 탐색과 달리 미리 정해진 검색식이나 절차에 엄격히 따르지 않는 비교적 비구조적인 검색방법이다.

② O
이용자가 화면에 나타난 항목을 보고 다음 경로나 자료를 선택하며 검색 방향을 계속 조정하므로, 시스템과 이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크게 나타난다.

③ O
자료와 링크를 연속해서 훑어보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유용한 정보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다.

④ O
정보요구가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정확한 검색어나 검색식을 정하기 어려울 때, 관련 자료를 둘러보며 요구를 구체화하는 데 적합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구조화된'이 함정이다. 브라우징도 검색의 한 방식이지만, 명확한 검색식과 절차를 중심으로 하는 탐색과 달리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경로가 달라지는 비구조적 성격이 강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보요구가 모호하고 링크를 따라가며 결과를 계속 조정하거나 뜻밖의 정보를 발견한다면 브라우징으로 판단한다. 목표와 검색식이 명확하고 절차가 체계적이라면 구조화된 탐색에 가깝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브라우징은 비구조적·상호작용적이며, 모호한 요구에서 우연한 발견을 돕는다.

NoteBase

7. 다음 중 전통적인 불리언 모델(Boolean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Salton이 정보검색에 도입한 모델이다.
② 대수론(algebra theory)에 근거한 모델이다.
③ 검색은 부분 매칭이라는 개념 없이 이진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④ 검색결과를 순위화 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전통적 불리언 모형의 이론적 기반과 검색 방식, 검색 결과의 순위화 가능 여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통적 불리언 모형은 문헌과 질의를 용어의 집합으로 표현하고 AND, OR, NOT 같은 불리언 연산으로 정확히 일치하는 문헌을 검색하는 집합론적 모형이다. 문헌은 질의 조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않는 두 경우로 판정되므로 부분 일치에 따른 유사도 점수와 검색 결과의 순위가 없다.
전통적 불리언 모형은 집합론·정확 일치·비순위 검색이 핵심이고, 벡터공간모형은 대수적 표현·부분 일치·유사도에 따른 순위화가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은 'Salton이 정보검색에 도입한 모델'이라는 표현이다. Salton과 대표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벡터공간모형이며, 전통적 불리언 모형은 불리언 논리와 집합론을 정보검색에 적용한 모형이다.
② X — 틀린 부분은 전통적 불리언 모형을 '대수론에 근거한 모델'로 분류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집합론에 근거한 집합론적 모형이며, 대수적 모형의 대표는 벡터공간모형이다.
③ O — 전통적 불리언 모형은 질의 조건의 충족 여부를 1 또는 0으로 판정하는 정확 일치 방식이다. 따라서 부분 매칭이나 일치 정도라는 개념 없이 이진 결정으로 검색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검색결과를 순위화 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전통적 불리언 모형은 검색된 문헌에 유사도 점수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결과를 적합도순으로 순위화할 수 없다.

오답 포인트

②의 '대수론'과 ④의 '순위화'는 벡터공간모형의 특성을 불리언 모형에 섞은 표현이다. 또한 불리언 연산을 사용한다는 사실 때문에 ②를 맞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정보검색모형의 분류에서는 전통적 불리언 모형을 집합론적 모형으로 구분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불리언 모형에 관한 선지는 '집합론, AND·OR·NOT, 정확 일치, 이진 결정, 순위화 불가'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부분 일치, 유사도, 대수적 표현, 순위화'가 나오면 벡터공간모형의 특성인지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불리언은 0과 1로 정확 일치하고 순위가 없으며, 벡터는 유사도를 계산해 순위를 매긴다.

NoteBase

8. 다음 중 랑가나단(S.R. Ranganathan)이 주장한 도서관 5법칙 중 누구나 독자가 될 수 있고 차별 없는 도서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평등성을 내포하고 있는 법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책은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Books are for use)
② 도서는 만인을 위한 것이다 (Books are for all)
③ 도서관 이용자의 시간을 절약하라 (Save the time of the reader)
④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다 (A library is a growing organization)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랑가나단의 도서관 5법칙 가운데 누구나 차별 없이 독자가 되어 자신에게 맞는 도서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평등 원리를 제2법칙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제1법칙: 책은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Books are for use) — 도서는 보존에만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제2법칙: 모든 독자에게 그의 책을(Every reader his or her book) — 누구나 차별 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도서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도서는 만인을 위한 것이다(Books are for all)'라는 표현도 이 보편적·평등한 이용 원리를 나타낸다.
제3법칙: 모든 책에는 그 독자를(Every book its reader) — 각 도서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독자와 연결되어야 한다.
제4법칙: 독자의 시간을 절약하라(Save the time of the reader) — 신속하고 편리한 검색·배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5법칙: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다(A library is a growing organism) — 도서관은 자료, 이용자, 조직과 서비스의 변화에 맞추어 계속 성장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책은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는 제1법칙으로, 자료의 적극적인 이용을 강조한다. 틀린 연결은 이를 평등 원리를 대표하는 법칙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도서의 이용 활성화를 내포한 법칙'이다.
② O — '도서는 만인을 위한 것이다'는 제2법칙의 취지이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독자가 되고 각자에게 알맞은 도서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평등 원리를 담는다.
③ X — '도서관 이용자의 시간을 절약하라'는 제4법칙으로, 정보 탐색과 서비스의 신속성·편의성을 강조한다. 틀린 연결은 이를 평등 원리를 대표하는 법칙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이용자의 시간 절약을 내포한 법칙'이다.
④ X —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다'는 제5법칙으로, 도서관이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적응해야 함을 뜻한다. 틀린 연결은 이를 평등 원리를 대표하는 법칙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도서관의 지속적 성장과 적응을 내포한 법칙'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①, ③, ④도 모두 랑가나단의 정당한 법칙이므로 법칙 자체의 진위를 묻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 문항은 각 법칙 가운데 '누구나'와 '차별 없는 제공'이라는 평등의 의미를 직접 담은 법칙을 고르는 문제이며, 그 단서는 ②의 '만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랑가나단의 5법칙은 이용·독자·도서·시간·성장의 순서로 구분한다. 보편성이나 이용 평등은 제2법칙, 책과 독자의 연결은 제3법칙, 신속성은 제4법칙, 변화와 확장은 제5법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1 이용, 2 모든 독자, 3 모든 책, 4 시간 절약, 5 성장이다. 평등은 '모든 독자'의 제2법칙이다.

NoteBase

9. 다음 중 어떤 특정 주제 분야의 핵심잡지 또는 핵심장서를 선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법칙 또는 이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지프의 법칙(Zipf's law)
② 로트카의 법칙(Lotka's law)
③ 브래드포드의 법칙(Bradford's law)
④ 롱테일 법칙(Long Tail theory)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서지계량학의 법칙과 그 활용 대상을 연결하여, 특정 주제 분야의 핵심잡지·핵심장서 선정에 적합한 법칙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지프의 법칙: 문헌에 사용된 단어의 출현 빈도와 빈도 순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
로트카의 법칙: 특정 분야에서 저자별 논문 생산량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설명한다.
브래드포드의 법칙: 특정 주제의 논문이 소수의 핵심잡지에 집중되고 나머지는 많은 잡지에 분산되는 현상을 설명하므로 핵심잡지 선정에 활용된다.
롱테일 법칙: 수요가 적은 다수의 비인기 상품이나 콘텐츠가 합쳐져 큰 시장을 형성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지프의 법칙은 단어의 출현 빈도와 순위의 관계를 다루므로 핵심잡지 선정 법칙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지프의 법칙'이며, 올바르게는 단어 빈도 분석에 활용되는 법칙이다.
② X — 로트카의 법칙은 논문 수를 기준으로 저자의 생산성 분포를 설명하므로 핵심잡지 선정 법칙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로트카의 법칙'이며, 올바르게는 저자 생산성 분석에 활용되는 법칙이다.
③ O — 브래드포드의 법칙은 특정 주제의 논문이 소수의 핵심잡지에 집중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따라서 특정 주제 분야의 핵심잡지 또는 핵심장서를 선정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④ X — 롱테일 법칙은 수요가 적은 다수의 비인기 상품·콘텐츠가 누적되어 큰 시장을 형성하는 현상을 다루므로 핵심잡지 선정 법칙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롱테일 법칙'이며, 올바르게는 다수의 틈새 수요가 만드는 시장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네 이론 모두 빈도나 분포의 편중과 관련되어 보이지만 분석 대상이 다르다는 점이 함정이다. 이 문항의 '특정 주제'와 '핵심잡지'라는 표현은 주제별 논문의 잡지 분산을 다루는 브래드포드의 법칙을 가리킨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석 대상을 먼저 확인한다. 단어는 지프, 저자 생산성은 로트카, 주제별 핵심잡지는 브래드포드, 다수의 틈새 수요는 롱테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지프=단어, 로트카=저자, 브래드포드=잡지, 롱테일=틈새 수요이다.

NoteBase

10. 다음 중 주제별 데이터베이스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A&HC - 인문 예술 인용 데이터베이스
② Proquest Central - 전 주제 분야 학술지, 잡지, 단행본, 보고서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③ ABI/INFORM - 경영/경제 분야의 데이터베이스
④ JCR - 논문의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논문단위 평가 데이터베이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주제별 데이터베이스의 수록 분야와 평가 단위를 올바르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HC는 인문학·예술 분야의 인용정보를 다루고, ProQuest Central은 여러 주제 분야의 학술지·잡지·신문·단행본·보고서 등을 폭넓게 제공하며, ABI/INFORM은 경영·경제 분야 자료를 제공한다. JCR은 인용자료를 바탕으로 학술지를 평가·비교하는 학술지 단위의 정보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A&HC는 인문학과 예술 분야의 인용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이므로 분야 연결이 옳다.

② O — ProQuest Central은 전 주제 분야에 걸쳐 학술지, 잡지, 단행본, 보고서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제공하는 종합 데이터베이스이므로 옳다.

③ O — ABI/INFORM은 경영·경제 분야의 학술 및 산업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이므로 옳다.

④ X — 틀린 표현은 '논문단위 평가 데이터베이스'이다. JCR은 개별 논문을 평가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인용지표를 이용하여 학술지를 평가·비교하는 학술지 단위의 정보원이다. 올바르게는 'JCR - 학술지의 인용지표를 제공하는 학술지 단위 평가 데이터베이스'이다.

오답 포인트

JCR이 논문의 인용정보를 기초로 지표를 산출한다는 점 때문에 평가 대상도 개별 논문이라고 혼동하기 쉽다. ④에서는 지표의 기초 자료가 아니라 최종 평가 단위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데이터베이스 문항에서는 먼저 수록 분야와 자료 유형을 확인하고, 평가 정보원은 평가 대상이 논문인지 학술지인지 구분한다. JCR이 나오면 학술지 단위의 인용지표와 평가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A&HC는 인문·예술, ProQuest Central은 전 주제, ABI/INFORM은 경영·경제, JCR은 학술지 단위 평가이다.

NoteBase

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색인과정의 단계로 가장 옳은 것은?

analysis, analyzer, analyzing ⇨ analy

① 토큰생성(tokenization)
② 불용어(stop words) 제거
③ 역문헌 빈도(inverse document frequency) 산출
④ 스테밍(stemming)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서로 형태가 다른 단어들을 공통 어간으로 축약하는 색인 전처리 단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스테밍(stemming)은 단어의 접사나 어미를 규칙에 따라 제거하여 공통 어간 형태로 축약하는 처리이다. 따라서 analysis, analyzer, analyzing을 analy로 바꾼 도식은 스테밍에 해당한다.
토큰생성은 텍스트를 단어 등의 처리 단위로 나누고, 불용어 제거는 검색 가치가 낮은 빈번한 단어를 제외하며, 역문헌 빈도 산출은 여러 문헌에 드물게 나타나는 용어에 더 큰 가중치를 주는 계산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토큰생성'은 틀린 표현이다. 토큰생성(tokenization)은 문장이나 문자열을 개별 단어·기호 등의 토큰으로 분리하는 단계이며, 여러 단어를 analy라는 공통 어간으로 축약하는 단계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텍스트를 토큰 단위로 분리한다'이다.
② X — '불용어 제거'는 틀린 표현이다. 불용어(stop words) 제거는 조사·관사처럼 빈번하지만 검색 주제 식별력이 낮은 단어를 색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계이다. 올바르게는 '검색 가치가 낮은 불용어를 제거한다'이다.
③ X — '역문헌 빈도 산출'은 틀린 표현이다. 역문헌 빈도(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특정 용어가 전체 문헌 집합에서 얼마나 드문지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산출하는 것이지, 단어 형태를 analy로 줄이는 처리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문헌 집합에서 드문 용어일수록 큰 역문헌 빈도 값을 부여한다'이다.
④ O — 스테밍(stemming)은 analysis, analyzer, analyzing처럼 형태가 다른 관련 단어에서 접사 등을 제거하여 공통 어간인 analy로 축약한다. 도식의 변환과 정확히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네 선지는 모두 색인과정의 용어이므로 처리 결과를 구별해야 한다. 단어를 나누는 것은 토큰생성, 특정 단어를 제외하는 것은 불용어 제거, 용어의 희소성을 수치화하는 것은 역문헌 빈도 산출, 단어 형태를 공통 어간으로 줄이는 것은 스테밍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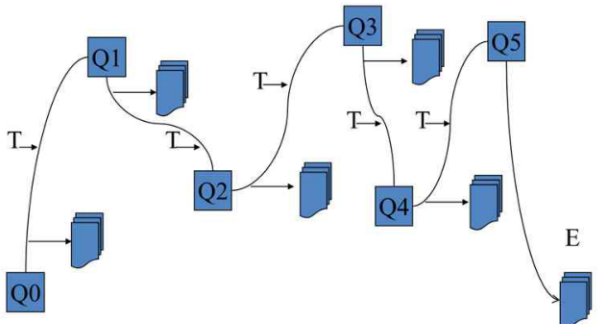
입력과 출력의 변화를 본다. 문장이 여러 단위로 나뉘면 토큰생성, 일부 단어가 사라지면 불용어 제거, 용어에 수치 가중치가 붙으면 역문헌 빈도 산출, 여러 활용·파생 형태가 하나의 짧은 어간으로 합쳐지면 스테밍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나누면 토큰생성, 빼면 불용어 제거, 희소성을 재면 역문헌 빈도, 어간으로 줄이면 스테밍이다.

NoteBase

12. 다음은 Berry-picking 정보행태 모형을 그린 것이다. 이 모형을 제안한 학자와 그림에서 제시된 T와 Q의 정확한 용어가 순서대로 나열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Bates, T-Thought, Q-Query Variation
② Bates, T-Talk, Q-Query Variation
③ Dervin, T-Thought, Q-Query Variation
④ Dervin, T-Talk, Q-Query Variation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Berry-picking 정보행태 모형의 제안자와 도식의 기호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이 모형은 Bates가 제안했으며, 도식에서 T는 Thought, Q는 Query Variation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Bates, T-Thought, Q-Query Variation의 연결이 모두 맞다.

② X - 제안자 Bates와 Q-Query Variation은 맞지만 T-Talk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T-Thought이다.

③ X - T-Thought와 Q-Query Variation은 맞지만 제안자를 Dervin으로 제시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Bates이다.

④ X - 제안자를 Dervin, T를 Talk로 제시한 두 부분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Bates, T-Thought, Q-Query Variation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Dervin은 정보행태 연구의 다른 모형과 관련된 학자이므로 Berry-picking 모형의 Bates와 혼동하기 쉽다. 또한 T를 일상어인 Talk로 추측하면 ②나 ④를 고르게 되지만, 도식에서 질의가 변화하는 계기는 이용자의 Thought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Berry-picking이 보이면 먼저 Bates를 연결하고, 도식의 T는 Thought, Q는 Query Variation으로 대응시킨다. 세 요소가 모두 맞는 선지를 고른다.

암기 포인트

Berry-picking = Bates, T = Thought, Q = Query Variation이다.

NoteBase

13. 다음 중 시소러스의 용어관계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USE는 주제명표목표의 "보라 참조"에 해당된다.
㉡ NT, BT, RT는 모두 디스크립터라 할 수 있다.
㉢ USE는 비우선어에 해당된다.
㉣ 용어간의 동등관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BT, NT가 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시소러스에서 USE, UF, BT, NT, RT가 나타내는 용어관계와 디스크립터·비디스크립터의 구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디스크립터는 색인과 검색에 사용하도록 채택된 우선어이고, 비디스크립터는 채택되지 않아 우선어로 안내되는 비우선어이다.
USE는 비우선어에서 사용할 우선어를 지시하며 주제명표목표의 '보라 참조'에 해당한다. UF는 우선어에서 비우선어를 보여 주는 역지시이다. 따라서 USE와 UF는 동등관계를 나타낸다.
BT는 상위어, NT는 하위어로 계층관계를 나타내고, RT는 관련어로 연관관계를 나타낸다. BT·NT·RT로 연결되는 용어는 우선어인 디스크립터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ㄱ과 ㄴ이 모두 옳다. USE는 '보라 참조'에 해당하고, NT·BT·RT가 가리키는 용어는 모두 디스크립터이다.
② X — ㄴ은 옳지만 ㄷ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USE는 비우선어에 해당된다'이다. 올바르게는 USE는 비우선어 자체가 아니라 비우선어에서 디스크립터인 우선어로 안내하는 지시기호이다.
③ X — ㄷ과 ㄹ이 모두 틀리다. USE는 비우선어가 아니라 우선어를 지시하는 기호이며, BT와 NT는 동등관계가 아니라 상위어·하위어의 계층관계를 표시한다. 올바르게는 동등관계는 USE와 UF로 표시한다.
④ X — ㄱ은 옳지만 ㄹ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동등관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BT, NT가 있다'이다. 올바르게는 BT·NT는 계층관계를, USE·UF는 동등관계를 표시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ㄷ은 USE가 비우선어 아래에 표시된다는 사실을 USE 자체가 비우선어라는 뜻으로 바꾼 함정이다. ㄹ은 동등관계 기호인 USE·UF와 계층관계 기호인 BT·NT를 서로 바꾸어 놓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USE·UF는 같은 개념의 우선어와 비우선어를 잇는 동등관계, BT·NT는 위아래의 계층관계, RT는 수평적인 연관관계로 구분한다. USE를 용어로 보지 않고 '우선어를 사용하라'는 지시기호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USE·UF는 동등, BT·NT는 계층, RT는 연관이다. USE는 비우선어가 아니라 우선어로 보내는 지시이다.

NoteBase

14. 사용성(usability) 평가방법은 평가의 주체에 따라 이용자에 의한 평가와 전문가에 의한 평가로 구분된다. 다음 중 이용자에 의한 평가방법으로만 구성된 것은?

① 심층면담평가(FGI), 발견평가(Heuristic Evaluation)
② 실험실 테스트(Usability lab testing), 심층면담평가(FGI)
③ 발견평가(Heuristic Evaluation), 인지적평가(Cognitive Walkthrough)
④ 인지적평가(Cognitive Walkthrough), 실험실 테스트(Usability lab testing)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사용성 평가방법을 실제 이용자가 참여하는 이용자 평가와 전문가가 원칙·과업 절차를 검토하는 전문가 평가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용자 평가: 실제 또는 잠재 이용자가 제품을 사용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여 사용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실험실 테스트와 심층면담평가(FGI)가 이에 해당한다.
전문가 평가: 사용성 전문가가 이용자 대신 인터페이스를 점검하는 방법이다. 발견평가와 인지적평가가 이에 해당한다.
실험실 테스트는 이용자가 통제된 환경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FGI는 이용자 집단의 경험과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집한다. 발견평가는 전문가가 사용성 원칙에 따라 문제를 찾고, 인지적평가는 전문가가 초보 이용자의 과업 수행 과정을 단계별로 검토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심층면담평가(FGI)는 이용자 평가이지만 발견평가는 전문가 평가이므로 이용자 평가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발견평가'이며, 이를 '실험실 테스트'와 같은 이용자 평가방법으로 바꾸면 이용자 평가만의 조합이 된다.
② O — 실험실 테스트는 실제 이용자의 과업 수행을 관찰하는 방법이고, 심층면담평가(FGI)는 이용자 집단으로부터 경험과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이므로 둘 다 이용자 평가이다.
③ X — 발견평가와 인지적평가는 모두 전문가가 수행하는 전문가 평가이다. 틀린 부분은 이 조합을 이용자 평가방법으로 본 것이며, 올바르게는 '전문가 평가방법으로만 구성된 조합'이다.
④ X — 인지적평가는 전문가 평가이고 실험실 테스트는 이용자 평가이므로 두 평가 주체가 섞여 있다. 틀린 표현은 '인지적평가'이며, 이를 '심층면담평가(FGI)'와 같은 이용자 평가방법으로 바꾸면 이용자 평가만의 조합이 된다.

오답 포인트

'인지적평가'라는 명칭 때문에 이용자의 인지를 직접 조사하는 방법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인지적평가는 전문가가 초보 이용자의 입장에서 과업 절차를 따라가며 문제를 예측하는 전문가 평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평가방법의 이름보다 실제 평가 주체를 확인한다. 이용자가 직접 과업을 수행하거나 의견을 말하면 이용자 평가이고, 전문가가 원칙이나 예상 과업 절차를 검토하면 전문가 평가이다.

암기 포인트

이용자 평가 = 실험실 테스트 · FGI, 전문가 평가 = 발견평가 · 인지적평가이다.

NoteBase

1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서관 네트워크로 가장 옳은 것은?

> · 해외 학술전자저널의 공동 구매 추진
> · 전자저널 도입과 활용의 범위를 크게 확대
> · 세계적인 출판사들 대상 전자저널 공동구매 컨소시엄

① AccessON
② KESLI
③ KERIS
④ UnCover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해외 학술전자저널을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동구매하여 국내 도서관의 전자저널 도입과 이용을 확대하는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KESLI는 국내 도서관들이 해외 학술전자저널을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출판사와의 컨소시엄을 지원하는 전자정보 공동구매 체계이다. 핵심 키워드는 '해외 학술전자저널', '공동구매', '출판사 컨소시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AccessON은 오픈액세스 학술정보의 생산·관리·공유와 이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므로, 제시된 해외 전자저널 공동구매 컨소시엄의 명칭이 아니다. 틀린 표현 'AccessON'은 'KESLI'로 고쳐야 한다.
② O — KESLI는 해외 학술전자저널의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전자저널의 도입·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출판사와 도서관을 연결하는 컨소시엄이므로 제시문과 일치한다.
③ X — KERIS는 교육·학술정보화를 지원하는 기관이며 대표적으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등을 운영한다. 제시된 전자저널 공동구매 컨소시엄 자체를 뜻하지 않으므로, 틀린 표현 'KERIS'는 'KESLI'로 고쳐야 한다.
④ X — UnCover는 학술지 논문 검색 및 원문 제공과 관련된 서비스이지, 세계적 출판사를 대상으로 전자저널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국내 컨소시엄이 아니다. 틀린 표현 'UnCover'는 'KESLI'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전자 학술정보와 관련된 기관·서비스 명칭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②의 KESLI에만 '해외 전자저널 공동구매'와 '출판사 컨소시엄'이라는 단서가 정확히 대응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서 공동구매, 해외 전자저널, 출판사 컨소시엄이 함께 나오면 KESLI로 판단한다. 오픈액세스는 AccessON, 교육·학술정보 지원과 RISS는 KERIS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KESLI = 해외 학술전자저널 공동구매 컨소시엄이다.

NoteBase

16. 다음 중 “정보안내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의 요구와 직접 관련된 정보들이 제공된다.
② 인적자원이 중요한 정보자원이 된다.
③ 정보요구가 발생하는 즉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서비스이다.
④ 다른 외부 기관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정보안내서비스의 목적과 자원, 수행 방식의 특징을 알고 즉답형 참고서비스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보안내서비스는 이용자의 생활·지역사회 관련 요구를 파악하고, 그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나 적절한 기관·사람을 안내하고 연결하는 서비스이다. 지역의 요구와 직접 관련된 정보,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인적자원, 외부 기관과의 협력 관계가 핵심이다. 반면 즉답형 참고서비스는 짧고 단순한 사실 질문에 신속하게 답하는 서비스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정보안내서비스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실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기관, 복지, 교육, 취업 등 요구와 직접 관련된 정보를 수집·제공한다.
② O — 적절한 전문가나 담당자를 연결하는 것도 서비스의 중요한 방식이므로 사람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인적자원이 핵심 정보자원이 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정보요구가 발생하는 즉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서비스’이다. 이는 짧고 단순한 질문에 바로 답하는 즉답형 참고서비스의 성격에 가깝다. 올바르게는 정보안내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한 뒤 관련 정보나 적절한 기관·사람을 안내하고 연결하는 서비스이다.
④ O — 한 기관이 모든 지역사회 정보를 보유할 수 없으므로 다른 외부 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고 이용자를 연계하는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오답 포인트

③의 ‘즉시 신속하게’라는 표현 때문에 정보서비스 전반의 장점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구별점은 처리 속도가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지역 정보·기관·인적자원을 찾아 연결하는 데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지역사회의 요구, 인적자원, 외부 기관과의 협력·연계가 나오면 정보안내서비스의 특징으로 판단한다. 짧은 사실 질문에 즉시 답한다는 설명은 즉답형 참고서비스와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정보안내서비스는 '지역 요구를 정보·사람·기관과 연결', 즉답형 참고서비스는 '짧은 질문에 신속한 답변'이다.

NoteBase

17. 다음 중 Bunge의 정보조사제공모형의 (가)와 (나)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① 추가 단서 수집, 질의어 선택
② 추가 단서 수집, 질문의 색인어
③ 질의어 추출, 질의어 선택
④ 질의어 추출, 질문의 색인어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Bunge의 정보조사 제공 모형에서 질문 명료화와 질문 번역 단계에 포함되는 세부 활동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이용자의 정보요구 파악 및 질문 접수
2. 질문의 명료화 — 이용자의 진술 내용을 해석하고 부족한 맥락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 단서를 수집한다.
3. 질문의 번역 — 명료해진 질문을 분석하여 질문의 색인어로 바꾼다.
4. 탐색전략 수립 및 탐색 실행
5. 관련성 판단, 정보의 전달, 적합성 판단

왜 이 순서인가: 먼저 이용자의 모호한 표현과 배경을 추가 단서로 명확히 해야 그 내용을 검색 가능한 색인어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는 추가 단서 수집, (나)는 질문의 색인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의 '추가 단서 수집'은 맞지만, (나)의 '질의어 선택'은 틀리다. 질문의 번역 단계에서 질문을 분석한 결과는 '질문의 색인어'로 나타난다. 올바르게는 '추가 단서 수집, 질문의 색인어'이다.

② O — 질문의 명료화 단계에서는 진술내용을 해석하고 추가 단서를 수집하며, 질문의 번역 단계에서는 질문을 분석하여 질문의 색인어로 표현한다. 두 빈칸의 단계와 활동이 모두 일치한다.

③ X — (가)의 '질의어 추출'과 (나)의 '질의어 선택'이 모두 해당 위치에 맞지 않는다. 명료화 단계에는 추가 단서 수집이, 번역 단계의 질문 분석 결과에는 질문의 색인어가 들어간다. 올바르게는 '추가 단서 수집, 질문의 색인어'이다.

④ X — (나)의 '질문의 색인어'는 맞지만, (가)의 '질의어 추출'은 틀리다. 명료화는 검색어를 뽑는 단계가 아니라 이용자의 진술에서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는 단계이다. 올바르게는 '추가 단서 수집, 질문의 색인어'이다.

오답 포인트

'질의어 추출'과 '질의어 선택'은 검색 준비 활동처럼 보여 빈칸에 넣기 쉽다. 그러나 흐름도에서 (가)는 질문을 명확하게 만드는 면담 활동이고, (나)는 명확해진 자연어 질문을 검색 가능한 표현으로 번역한 결과라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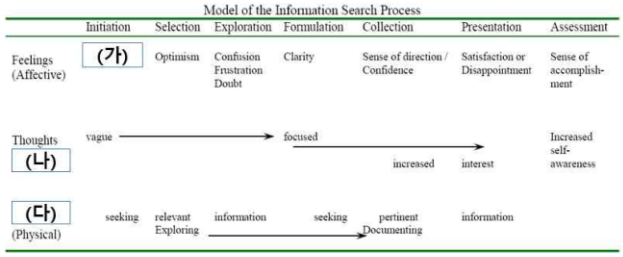
절차형 문항에서는 각 단계의 목적과 산출물을 연결한다. 질문의 명료화는 모호함 해소를 위한 추가 단서 확보, 질문의 번역은 검색을 위한 색인어화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명료화는 단서 보충, 번역은 색인어 변환이다.

NoteBase

18. Kuhlthau의 Information Search Process 모형을 나타내는 도식의 (가), (나), (다)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① Uncertainty - Mental - Actions
② Concern - Mental - Actions
③ Uncertainty - Cognitive - Actions
④ Concern - Cognitive - Actions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Kuhlthau의 정보탐색과정(ISP) 도식에서 감정적 영역, 인지적 영역, 물리적 영역의 명칭과 탐색 시작 단계의 감정 상태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도식의 (가)는 탐색 시작 단계의 불확실성(Uncertainty), (나)는 사고를 뜻하는 인지적(Cognitive) 영역, (다)는 행동(Actions)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의 Uncertainty와 (다)의 Actions는 맞지만, 사고(Thoughts)를 나타내는 (나)는 Mental이 아니라 Cognitive이다. 올바른 배열은 Uncertainty - Cognitive - Actions이다.
② X — (가)를 Concern, (나)를 Mental로 제시한 부분이 모두 틀렸다. 탐색 시작 단계의 감정은 Uncertainty이고, 사고 영역은 Cognitive이므로 올바른 배열은 Uncertainty - Cognitive - Actions이다.
③ O — 탐색 시작 단계의 감정은 Uncertainty이며, Thoughts는 Cognitive 영역, Physical 영역은 Actions를 뜻하므로 세 빈칸이 모두 도식과 일치한다.
④ X — (나)의 Cognitive와 (다)의 Actions는 맞지만, 탐색 시작 단계의 (가)는 Concern이 아니라 Uncertainty이다. 올바른 배열은 Uncertainty - Cognitive - Actions이다.

오답 포인트

도식의 Thoughts를 일상어인 Mental로 바꾸어 놓은 ①·②와, 탐색 초기의 불안한 감정을 Concern으로 바꾸어 놓은 ②·④가 함정이다. Kuhlthau 모형의 공식 영역 명칭은 Affective-인지적(Cognitive)-Physical이며, 시작 단계의 대표 감정은 Uncertainty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도식의 세 층을 Feelings-Affective, Thoughts-Cognitive, Actions-Physical로 대응시킨다. 그다음 Initiation 단계의 감정이 Uncertainty라는 점을 적용하면 빈칸의 배열을 바로 결정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시작은 불확실성(Uncertainty), 사고는 인지(Cognitive), 물리적 활동은 행동(Actions)이다.

NoteBase

19. Eisenberg와 Berkowiz가 개발한 Big6 모형의 단계가 순서대로 나열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보문제 정의 - 탐색전략 수립 - 정보식별과 접근 - 정보이용 - 통합 - 평가
② 정보문제 정의 - 탐색전략 수립 - 정보식별과 접근 - 정보이용 - 통합 - 발표
③ 정보문제 정의 - 탐색전략 수립 - 정보식별과 접근 - 정보이용 - 발표 - 평가
④ 정보문제 정의 - 탐색전략 수립 - 정보식별과 접근 - 정보이용 - 발표 - 통합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Eisenberg와 Berkowitz의 Big6 정보문제 해결 모형을 6단계의 올바른 순서로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올바른 순서

1. 정보문제 정의 — 해결할 과제와 필요한 정보를 분명히 한다.
2. 탐색전략 수립 — 가능한 정보원을 검토하고 적절한 정보원을 선택한다.
3. 정보식별과 접근 — 선택한 정보원의 위치를 찾고 실제 정보에 접근한다.
4. 정보이용 — 찾은 정보를 읽고 핵심 내용을 추출한다.
5. 통합 — 추출한 정보를 조직하고 결합하여 결과물로 표현한다.
6. 평가 — 결과물의 효과와 정보문제 해결 과정의 효율성을 판단한다.

정보를 이용해 내용을 얻은 뒤에야 이를 통합할 수 있고, 완성된 결과와 수행 과정을 마지막에 평가하므로 이 순서가 성립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정보문제 정의 → 탐색전략 수립 → 정보식별과 접근 → 정보이용 → 통합 → 평가의 순서로 Big6의 6단계를 정확히 제시한다.

② X — 마지막의 '발표'가 틀렸다. 발표는 독립된 제6단계가 아니라 통합 단계에서 결과물을 조직·표현하는 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올바르게는 '정보이용 → 통합 → 평가'이다.

③ X — '발표'가 통합을 대신한 부분이 틀렸다. 정보이용 다음에는 정보를 조직하고 결합하는 '통합'이 와야 하며, 그 다음이 '평가'이다. 올바르게는 '정보이용 → 통합 → 평가'이다.

④ X — '발표 → 통합'의 배열이 틀리고 마지막 평가 단계도 빠졌다. 결과물의 표현은 통합에 포함되며 통합 후에는 평가가 이어진다. 올바르게는 '정보이용 → 통합 → 평가'이다.

오답 포인트

선지들은 앞의 네 단계를 동일하게 두고 마지막 두 단계에 '통합·평가·발표'를 섞어 놓았다. Big6의 정식 마지막 두 단계는 통합과 평가이며, 발표는 별도의 단계명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Big6 순서 문제는 과제 규정 → 탐색 계획 → 정보원 접근 → 정보 추출 → 정보 결합·표현 → 결과와 과정 평가의 흐름으로 판단한다. 특히 결과물을 만들기 전에는 평가할 수 없으므로 통합이 평가보다 앞선다.

암기 포인트

정의-전략-접근-이용-통합-평가의 여섯 단계이며, 끝은 반드시 '통합 후 평가'이다.

NoteBase

20. 다음 중 소셜태깅의 일종으로 일반인이 만드는 태그로 구축된 언어 군집을 일컫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택소노미
② 폭소노미
③ 태그 클라우드
④ 샵태그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만든 태그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분류 체계를 가리키는 용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폭소노미(folksonomy)는 다수의 일반 이용자가 콘텐츠에 자유롭게 태그를 붙이면서 형성되는 협력적 분류 체계이다. 택소노미는 전문가나 관리자가 미리 정한 기준과 계층에 따라 대상을 분류하는 체계이고, 태그 클라우드는 태그의 사용 빈도나 중요도를 글자 크기 등으로 나타낸 시각적 표현이다. 즉 폭소노미는 이용자 참여형 분류, 택소노미는 사전 설계형 분류, 태그 클라우드는 태그의 시각화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택소노미는 미리 정한 분류 기준과 계층에 따라 대상을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방식이다. 일반인이 만든 태그로 구축되는 언어 군집이라는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택소노미'는 '폭소노미'로 고쳐야 한다.
② O — 폭소노미는 일반 이용자들이 콘텐츠에 자유롭게 부여한 태그가 축적되어 형성되는 언어 군집이자 협력적 분류 체계이므로 문항의 정의와 일치한다.
③ X — 태그 클라우드는 여러 태그의 빈도나 중요도를 글자 크기 등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태그로 구축된 이용자 참여형 분류 체계 자체를 뜻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태그 클라우드'는 '폭소노미'로 고쳐야 한다.
④ X — 샵태그는 문항에서 말하는 일반 이용자 참여형 분류 체계의 명칭이 아니다. 해당 정의를 가리키는 올바른 용어는 '폭소노미'이다.

오답 포인트

① 택소노미와 ② 폭소노미는 모두 분류와 관련되어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일반인이 만드는 태그'라는 표현이 나오면 전문가가 미리 설계한 택소노미가 아니라 이용자 참여로 형성되는 폭소노미를 뜻한다. ③ 태그 클라우드는 태그 자체의 분류 방식이 아니라 태그를 보여 주는 시각화 방식이라는 점도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류의 주체와 형성 방식을 확인한다. 전문가·관리자가 기준과 계층을 미리 정하면 택소노미,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태그를 붙여 집단적으로 형성하면 폭소노미, 태그를 크기 등으로 보여 주면 태그 클라우드이다.

암기 포인트

전문가의 계층 분류는 택소노미, 대중의 자유 태깅은 폭소노미, 태그의 시각화는 태그 클라우드이다.

NoteBase

21. 다음 중 가상참고서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신뢰성
② 정보의 국제성
③ 탐색의 단순성
④ 정보유형의 다양성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가상참고서가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장점과 실제 탐색 과정의 성격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상참고서가는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기관과 전자정보원을 연결하여 참고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정보서비스 환경이다. 다양한 지역과 유형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지만, 정보원이 분산되어 있고 검색 방식도 서로 달라 탐색이 언제나 단순한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정보의 신뢰성은 가상참고서가가 검토·선별된 참고정보원과 전문적인 정보서비스를 활용한다는 특성에 해당한다.
② O — 정보의 국제성은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과 국경의 제약을 넘어 세계 여러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특성에 해당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탐색의 단순성'이다. 여러 기관의 정보원이 분산되어 있고 검색 체계와 인터페이스가 서로 달라 탐색 과정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올바르게는 '탐색의 복잡성'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정보유형의 다양성은 문자 자료뿐 아니라 이미지·음성·영상 등 여러 형태의 디지털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특성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단순성'은 온라인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다는 편의성과 실제 정보탐색 과정이 단순하다는 뜻을 혼동하게 만든다. 접근은 편리할 수 있지만 다양한 정보원에서 적합한 자료를 찾고 평가하는 탐색 과정 자체는 복잡할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상참고서가의 특성은 '무엇을 얻는가'와 '어떻게 찾는가'를 나누어 판단한다. 얻는 정보는 신뢰성·국제성·유형의 다양성을 가지지만, 찾는 과정은 정보원과 검색 체계가 다양하므로 단순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가상참고서가: 정보는 신뢰성·국제성·다양성, 탐색은 단순성이 아니라 복잡성이다.

NoteBase

2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 · 개별단위의 디지털 실체를 표현
> · 식별자, 디렉토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로 구성
> · 링킹 메커니즘

① Metadata
② DOI
③ RDF
④ Dublin Core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개별 디지털 객체를 식별하고 연결하는 DOI와 자원 기술용 메타데이터 체계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DOI(Digital Object Identifier)는 디지털 객체에 지속적인 식별자를 부여하고, 디렉토리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당 객체로 연결하는 식별·링킹 체계이다.
Metadata는 자원의 속성을 설명하는 데이터이고, RDF는 자원 간 관계를 표현하는 데이터 모델이며, Dublin Core는 자원을 기술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 집합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Metadata는 자원의 제목·저자·주제 같은 속성을 설명하는 데이터이다. 지문의 '식별자, 디렉토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링킹 메커니즘으로 구성된 체계'를 뜻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Metadata'는 'DOI'로 고쳐야 한다.
② O — DOI는 개별 디지털 객체를 식별자로 표현하고, 디렉토리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링킹 메커니즘으로 객체에 연결하는 체계이므로 지문의 설명과 일치한다.
③ X — RDF는 자원과 자원 간 관계를 주어·서술어·목적어 구조로 표현하는 데이터 모델이다. 지문과 같은 지속적 식별·링킹 체계를 가리키지 않는다. 틀린 표현 'RDF'는 'DOI'로 고쳐야 한다.
④ X — Dublin Core는 제목, 작성자, 주제 등 자원을 기술하기 위한 표준 메타데이터 요소 집합이다. 지문의 식별자·디렉토리·데이터베이스 기반 링킹 체계가 아니다. 틀린 표현 'Dublin Core'는 'DOI'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디지털 실체를 표현한다'는 문구만 보고 Metadata나 Dublin Core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디렉토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링킹 메커니즘이 함께 제시된 것이 결정적 단서이며, 이는 단순한 자원 기술 규칙이 아니라 DOI의 식별·연결 구조를 뜻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속적 식별자와 디렉토리·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연결이 핵심이면 DOI로 판단한다. 자원의 속성 기술이면 Metadata, 관계 표현이면 RDF, 표준 메타데이터 요소 집합이면 Dublin Core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DOI는 식별하고 연결하며, Dublin Core는 기술하고, RDF는 관계를 표현한다.

NoteBase

23.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용자가 취할 탐색 전략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요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 또한 이용자는 해당 주제의 전문지식이 있다.
> · 이용자가 정보탐색에 활용할 개념에 대해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개념을 식별할 수 있다.
> ·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최대한 신속한 탐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 방대한 자료보다는 잘 정리된 소수의 자료를 선호한다.

① 블록만들기 방법(building blocks)
② 눈덩이굴리기 방법(snowballing)
③ 점진 분할 방법(successive fractions)
④ 특정 패싯 우선탐색 방법 (most specific facet first)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용자의 정보요구, 주제 지식, 탐색 시간, 원하는 자료의 양을 근거로 가장 적합한 탐색전략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블록만들기 방법은 탐색 주제를 여러 개념 블록으로 나누고, 각 블록의 동의어는 OR로 묶은 뒤 블록끼리는 AND로 결합하는 방법이다.
눈덩이굴리기 방법은 적합한 핵심 문헌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 문헌의 참고문헌, 인용문헌, 관련 주제어 등을 따라 자료를 확장하는 방법이다.
점진 분할 방법은 비교적 넓은 검색 결과에서 시작하여 조건이나 개념을 차례로 추가하면서 결과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다.
특정 패싯 우선탐색 방법은 여러 개념 중 가장 구체적이고 식별력이 높은 패싯부터 검색하여 처음부터 결과를 소수의 관련 자료로 좁히는 방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블록만들기 방법은 여러 개념과 동의어를 체계적으로 조합하여 탐색식을 구성할 때 적합하다. 이 문항처럼 이용자가 주제를 잘 알고 신속하게 소수의 자료를 원하는 상황을 직접 나타내는 전략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블록만들기 방법'이며, 올바르게는 '여러 측면의 개념과 동의어를 빠짐없이 조합하려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다.
② X — 눈덩이굴리기 방법은 이미 확보한 적합 문헌을 출발점으로 인용·참고문헌 관계를 따라 관련 자료를 계속 확장하는 전략이다. 처음부터 검색 결과를 소수로 제한하려는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눈덩이굴리기 방법'이며, 올바르게는 '출발점이 되는 핵심 문헌에서 연관 문헌을 확장하려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다.
③ X — 점진 분할 방법은 넓게 검색한 결과를 조건 추가를 통해 차례로 좁혀 가므로 탐색 과정에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 시간적 여유가 없고 처음부터 신속한 축소가 필요한 상황에는 최선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점진 분할 방법'이며, 올바르게는 '넓은 결과 집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려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다.
④ O — 이용자는 주제와 자신의 요구를 정확히 알고, 여러 개념 중 식별력이 높은 개념을 가려낼 수 있으며, 시간은 부족하고 소수의 잘 정리된 자료를 원한다. 따라서 가장 구체적인 패싯부터 검색하여 결과를 빠르게 좁히는 특정 패싯 우선탐색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오답 포인트

'다양한 개념을 식별할 수 있다'는 표현만 보고 블록만들기 방법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결정적인 조건은 이용자가 주제를 잘 알고 있고, 시간이 부족하며, 방대한 자료보다 소수의 정밀한 자료를 원한다는 점이다. 이는 여러 블록을 폭넓게 조합하는 전략보다 식별력이 가장 높은 특정 패싯을 먼저 쓰는 전략을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용자가 주제 전문가이고 요구가 명확하며 소수의 정확한 결과를 신속히 원하면 가장 구체적이고 식별력 높은 패싯을 먼저 선택한다. 넓게 시작해 점차 줄인다는 조건이면 점진 분할, 핵심 문헌에서 연관 자료를 이어 찾는다는 조건이면 눈덩이굴리기, 개념군과 동의어를 조합한다는 조건이면 블록만들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전문가·시간 부족·소수 정밀 자료는 '가장 구체적인 패싯부터'이다.

NoteBase

24. 다음 중 Taylor의 4단계 이용자 의식 상태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면의 요구 단계 - 의식적으로가 아닌 무의식적으로 정보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실제 표현은 하지 못하는 단계

② 의식된 요구 단계 - 의식적으로 정보요구를 표현하는 단계

③ 공식화된 요구 단계 - 모호하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정보요구를 표현하는 단계

④ 협상된 요구 단계 - 이용자 스스로 내용 수정, 탐색 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상된 요구 단계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Taylor의 이용자 정보요구 4단계인 내면적 요구, 의식된 요구, 공식화된 요구, 협상된 요구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내면적 요구: 이용자에게 실제 정보요구가 있으나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상태에 머물러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단계이다.
의식된 요구: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요구를 의식 속에서 인식하고 막연하게 서술할 수 있는 단계이다.
공식화된 요구: 막연한 요구를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공식적인 질문으로 언어화한 단계이다.
협상된 요구: 정보시스템의 특성이나 사서와의 협상 등을 고려하여 실제 제시할 질문의 형태로 조정한 단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내면적 요구를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경우로만 한정한 부분이 틀렸다. 내면적 요구는 이용자에게 실제로 존재하지만 아직 표현되지 않은 요구이며,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다. 올바르게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정보의 필요를 느끼지만 이를 실제 질문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단계'이다.
② O - 의식된 요구는 이용자가 정보요구의 존재를 의식하고 머릿속에서 막연하게 표현하는 단계이다. 아직 명료하고 공식적인 질문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다.
③ O - 공식화된 요구는 의식된 요구를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공식적인 질문의 형태로 표현하는 단계이다. 실제 정보시스템에 맞춘 최종 질문으로 조정되기 전이므로 어느 정도 모호성이 남을 수 있다.
④ O - 협상된 요구는 이용자가 정보시스템의 제약이나 사서와의 협상 과정에 맞추어 질문의 내용과 표현을 조정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질문 수정과 탐색 수행이 가능하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①의 '무의식적으로'라는 표현만 보고 내면적 요구의 특징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Taylor의 내면적 요구는 무의식적인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고 의식적이지만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요구가 아직 말로 나오지 않았으면 내면적 요구, 머릿속에서 막연히 인식되면 의식된 요구, 합리적인 질문으로 언어화되면 공식화된 요구, 정보시스템이나 중개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조정되면 협상된 요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내면은 미표현, 의식은 머릿속 인식, 공식화는 질문으로 정리, 협상은 시스템에 맞춘 조정이다.

NoteBase

25. 다음 중 정보검색 성능평가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현율은 검색의 완전성을, 정확률은 검색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② F-척도는 재현율과 정확률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단일가 척도이다.

③ R-정확률은 적합문서의 수가 매우 많을 때 유용한 검색 성능측도이다.

④ 잡음률은 검색된 적합문헌의 비율로서 1에서 재현율을 뺀 값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정보검색 성능평가 척도인 재현율, 정확률, F-척도, R-정확률, 잡음률의 정의와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재현율은 전체 적합문헌 가운데 검색된 적합문헌의 비율로 검색의 완전성을 나타낸다. 정확률은 검색된 전체 문헌 가운데 적합문헌의 비율로 검색 결과의 정확성을 나타낸다.
F-척도는 재현율과 정확률을 조화평균으로 결합한 단일 척도이다. R-정확률은 전체 적합문헌 수를 R이라고 할 때 상위 R개의 검색 결과에서 구한 정확률이다. 잡음률은 검색된 전체 문헌 가운데 부적합문헌의 비율이며, 정확률의 보수인 1-정확률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재현율은 전체 적합문헌 중 검색에 성공한 적합문헌의 비율이므로 완전성을 측정하고, 정확률은 검색 결과 중 적합문헌의 비율이므로 정확성을 측정한다.
② O — F-척도는 서로 상충할 수 있는 재현율과 정확률을 조화평균으로 종합하여 하나의 값으로 평가하는 척도이다.
③ O — R-정확률은 해당 질의의 적합문헌 총수 R만큼 상위 문헌을 검색했을 때의 정확률이다. 적합문헌이 많은 상황에서도 임의의 고정 검색 건수 대신 R을 기준으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검색된 적합문헌의 비율'과 '1에서 재현율을 뺀 값'이다. 잡음률은 검색된 전체 문헌 중 부적합문헌의 비율이며, 올바르게는 정확률의 보수인 1-정확률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재현율의 보수와 잡음률을 혼동하게 한다. 1-재현율은 전체 적합문헌 중 검색되지 않은 적합문헌의 비율이고, 잡음률은 검색된 전체 문헌 중 부적합문헌의 비율인 1-정확률이므로 서로 다른 척도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척도의 분모와 분자를 먼저 확인한다. 재현율은 '전체 적합문헌'을 분모로 삼고, 정확률과 잡음률은 모두 '검색된 전체 문헌'을 분모로 삼는다. 정확률의 분자는 적합문헌이고 잡음률의 분자는 부적합문헌이다.

암기 포인트

재현율은 적합문헌을 얼마나 빠짐없이 찾았는가, 정확률은 찾은 문헌이 얼마나 적합한가, 잡음률은 부적합문헌을 얼마나 잘못 끌어왔는가를 나타낸다.

NoteBase